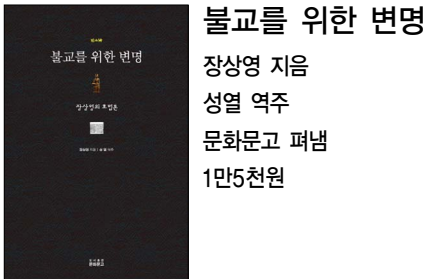


불교 죽이려다 불교의 위대함 알게 돼



불교를 위한 변명
장상영 지음
성열 역주
문화문고 펴냄
1만5천원

당나라 때의 유명한 문인 한유(768~824)의 <원도(原道)>와 <논불표(論佛表)>, 송나라 때의 구양수(1007~1072)의 <본론(本論)>과 같은 배불론(排佛論)을 비판한 무진기사 장상영(張商英·1042~1122)의 <호법론(護法論)>이다.

장상영은 19살 때 급제하고 처음 주부(主簿·문서와 장부를 관리하고, 관청의 물건을 출납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절에 놀러갔다가 불경이 비단 위에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보고 자신이 존경하던 공자의 글이 오랑캐의 가르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비분강개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새벽 삼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이 까닭을 물으니 이유를 말하고 무불론(無佛論)을 써야겠다고 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부처님이 없으면 그만이지, 부처님이 없다는 글은 써서 무엇 하느냐?”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나서 글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했다. 장상영은 그 말을 예사롭지 않다고 여기고 무불론을 쓰는 것을 멈추었다.

후에 동료의 집을 방문했더니 불강(佛龕) 앞에 몇 권의 경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 책은 <유마힐소설경(優摩訶舍設經)>이었다. 장상영이 손이 가는데 책을 뒤적여 보았는데, ‘문수사리문질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다.

책을 빌려 집에 돌아와 <유마힐소설경(優摩訶舍設經)>을 보고 있는 장상영에게 부인이 <유마힐소설경(優摩訶舍設經)>을 숙독하고 난 뒤 무불론을 쓰라고 한다. 예사롭지 않은 부인의 말에 송구스러워하며 그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게 되었고, 선승들의 가르침에도 마음을 두게 되었다.

“한유가 <논불표(論佛表)>에 말하되, ‘부처의 가르침은 오랑캐의 법으로서 후한 때 중국에 들어왔으며, 상고시대에는 아직 없었다.’

그때에는 황제 이하 문무 이상이 대부분 백 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 뒤에 부처님을 섬김이 점점 공경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의 나이와 왕조의 수명이 한 층 더 짧아졌다”고 했다.

그런데 한유는 비겁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맹자께서 ‘순임금은 저품에서 태어나서 부하에 옮겼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쪽 오랑캐이고, 문왕에 옮겼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쪽 오랑캐이고,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영에 서 돌아가셨으니 서쪽 오랑캐’라고 말했는데, 어찌 한유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순임금과 문왕은 모두 성인이고 천하 후세에게 법을 시행하였거늘

사람이 오랑캐라 하여 어찌 그 법마저 폐지해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부처님은 정반국의 왕에다가 정반국은 남섬주부의 중앙이니 오랑캐는 아니다.”

책은 불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저서의 글들을 뽑아 그 글이 옳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교가 중국의 기존 문화들 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불교는 인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출발하게 된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대략 5백여 년이 지나면서 중국에 전해지는데, 그것은 인도를 배경으로 출발한 사상이 전혀 다른 역사와 전통, 문화 속으로 이입되는 것을 뜻한다.

중국에는 중국인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가 있었고, 더욱이 한족은 문화민족이란 자긍심 또한 높았던 터라 불교를 이민족의 사상이요 오랑캐의 가르침이란 시각으로 경시하고 배척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서 정착하고 발

‘배불론’ 저서들 비판한 불교 ‘옹호론’

“부처님 공부부터 하고 글 쓰는데…”

‘무불론’ 쓰려다 부인 고언에 중단

<유마힐소설경(優摩訶舍設經)>읽고 불법에 감탄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 보여줘

전하는 데에는 많은 험난한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승우(444~518)의 <홍명집(弘明集)>이나 도선(596~667)의 <광홍명집(廣弘明集)> 또는 <집고금불도논행(集高僧佛道論行)>, 언종의 <집사문불용배속등사(集沙門佛用 배속 등사)> 등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인도사상인 불교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나 도교와의 충돌이 빚어내는 사상적 갈등의 모양을 엿볼 수 있으니, 문화충돌이 얼마나 깊고 심각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충돌의 과정 속에서 불교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뜻에서 나온 글이 <호법론(護法論)>이다.

당나라 때나 송나라 시대에 불교를 변호하는 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개가 출가한 고승들이 호교의 차원에서 썼던 글인데 비해 <호법론(護法論)>은 출가자가 아닌 재가 거사의 글이다. 더구나 장상영 역시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유생이었고, 처음에는 불교를 배척하는 글을 쓰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심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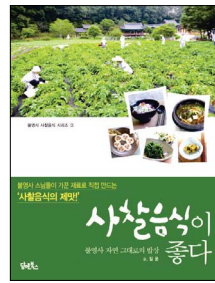
앞에서 말한 한유나 구양수의 배불론(排佛論)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사찰음식? 대중이 먹는 ‘절밥’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8천원



“질경이, 쌀, 소금”
“고구마, 쌀”
“소루쟁이, 채수, 된장, 굵은소금”

질경이죽, 고구마밥, 소루쟁이국의 재료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몇 가지 양념을 더하여 그대로 찜시에 담아 낸 불영사의 사찰음식들이다. 책에는 천년고찰 불영사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차린 밥과 반찬 이야기가 담겨있다. ‘불영사 사찰음식’ 시리즈 3권째다.

정갈하고 몸에 좋다고 소문난 사찰음식. 하지만 막상 따라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레시피를 따라해 보지만 ‘맛’이나 ‘느낌’을 위해 개량된 경우가 많고 번다하다. 이런 요리는 실제 사찰 공양상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하지만 책에 등장하는 밥, 국, 무침, 장아찌 등은 실제 비구니 수행처로 유명한 불영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운력을 통해 ‘현재’도 ‘수시로’ 만들고 먹고 있는 차림이다. 불영사 음식은 어렵지 않다. 무척 간단하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몇 가지 양념을 더하여 그대로 찜시에 담아낸다. 전수(傳授)의 개념이 아니라 몇 번 만들어 봄으로써 내 것이 되는 음식. 공양주 스님만이 아니라 대중 스님이 모두 음식을 만들으로써 절밥이 그대로



아토피 피부에 좋은 다래소금 장아찌

사찰음식이 되는 것이다. 번거로움을 피하면서도 자연 식재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음식들은 따라 하기도 쉽고 맛도 일품이다.

책에는 밥·국·죽·수프·겉절이·샐러드·면·튀김·떡·전·볶음·조림·무침·찜·장아찌 등 모두 132개의 사찰음식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다. 132가지의 음식 중에는 특히 장아찌 요리가 많은데, 만들기에 조금 손이 가긴 하지만 원재료의 맛을 가장 잘 지키면서 입맛을 돋우고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특징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부쩍 장아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한식 요리점은 물론 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장아찌 한두 가지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예사인 만큼 이제 장아찌는 우리 식탁과 친해졌다. 거기다 숙성 과정에서 <장(醬)> 성분이 채소와 함께 숙성되기 때문에 독특한 맛이 나서 향이 있는 채소를 활용하기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불영사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 ‘만들기가 쉽다’는 장아찌에도 적용된다.

박재완 기자

‘소망’과 ‘은혜’ 담은 동화 ‘부모은중경’

별을 밝히는 아이

김미정 글 | 엄수지 그림 | 참글어린이 펴냄 | 9천5백원



초등학교 2학년 아라는 앞집에 사는 친구 연이가 앞집고 부럽다. 연이는 동생이 태어났다고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골방 집으로 간다. 이라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별을 밝히는 아이>는 친구 연이처럼 자신에게도 동생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라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정성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다.

집에 돌아오면 아래대 집은 텅 비어 있다. 스포츠댄스 강사인 엄마는 학원에 가 있고 목수인 아빠는 지방의 현장에 가 있기 일쑤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아라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아라가 태어난 날 아빠가 공사중이던 집의 서까래 아래서 발견했다던 나무로 만든 돼지 다르마뿐이다.

하도 만져서 코가 빨개진 다르마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아라에게 어느날 다르마가 대답을 한다. 아라는 깜짝 놀라지만 곧 다르마와 둘만의 대화를 시작한다. 동생을 원하는 아라에게 다르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다. 바로 잔뜩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손 위에 네 개의 석등을 펼쳐 보여주며 그 석등 모두에 불이 켜지면 그 빛이 별이 되어 동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별 하나가 새 빛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동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노력,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라는 다르마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간다. 그렇게 석등에 불을 두 개 밝힌 어느 날, 엄마가 열이 오르며 아프다고 했고 급기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다.

이야기는 <부모은중경>이라는 가법지만은 않은 불교경전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콜라주 작업으로 아라와 다르마를 천진난만한 느낌으로 표현해낸 엄수지 작가의 그림도 기존의 불교동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하고 세련된 맛을 전해준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25 ~ 10/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중	공감
4	직지 길을 가리키다	이시우	민중사
5	기도	법륜	정토
6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커스
8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앤북스
9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10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김기추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거름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거름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해안으로 <직지>에 담긴 계승과 선문답에 대한 총질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갈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민중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온 1131호 민중사 Tel. 021732-2403~4 Fax. 021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동명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부에게 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치(横山 暎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x6판

Tel. 021732-2403~4 **민중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국근 저·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1732-2403~4 **민중사**